

#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유지(11월:-7.3% →12월:-14.2)</li> <li>- 12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7.7(2000=100)로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해 지난달의 감소세가 심화됨</li> <li>○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감소(11월: 16.7→12월:3.9%)</li> <li>-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0.5% 감소하고 대형마트 부문이 1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3.9% 증가함</li> <li>○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li> <li>-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9%, 전년동기대비 3.9% 각각 상승함</li> </ul>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보합세</li> <li>-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62.2%로 남자는 73.6%, 여자는 51.4%임</li> <li>○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li> <li>-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1천명(0.4%) 증가한 491만 명이며, 전월대 비로는 3천명(0.1%) 감소함</li> <li>○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li> <li>- 1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4.2%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1.3%p로 지난달과 동일함</li> </ul>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건설 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li> <li>- 12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35,81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함</li> <li>- 발주자별로 보면 대학 첨단연구 단지 및 상수도 공사부문의 발주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48.2% 증가, 신규 주택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 감소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3.7% 감소</li> <li>○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li> <li>-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상승폭이 12월에 비해 0.4%p 확대됨</li> <li>- 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지역별로 강북은 0.6% 상승해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지역은 0.1% 상승해 전월과 동일함</li> </ul>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축소</li> <li>- 1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42조 417억 원으로, 전월대비 4050억 원 감소하여 감소세로 전환</li> <l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li> <li>-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5.4%(-106개) 감소한 1,875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5.4%로 소폭 축소됨</li> <li>○ 서울의 부모업체 수 전월대비 소폭 증가, 어음부도를 증가</li> <li>- 1월 서울의 부모업체 수는 전월(62개) 보다 8.1%(5개) 증가한 67개로, 2006년 중 평균(74.3개)을 하회함</li> <li>- 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li> <li>○ 서울시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 감소</li> <li>-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월중 598건, 179억 26백만 원을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28.8%, 금액은 32.3% 감소함</li> </ul>

## | 생 · 산 |

12월 중 경기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투자 호전 등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나감
  - 12월 중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지난 11월(10.8%)에 비해 소폭 확대된 12.4%를 기록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등에서 감소하여 지난달 보다 소폭(-0.4%)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12.4% 증가하여 지난달  
보다 확대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감소하였으나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호조로 지난달에 비해 0.1%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증가세로 전환
  - 12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7.7(2000=100)으로, 지난 달의 소폭 감소세(-2.4%) 소  
폭 증가해(2.2%) 한 달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업종별로 보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에서 증가한 반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인쇄출판,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함
- 서울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3.3% 감소하여 지난 달 나타났던 감소세가  
심화됨
  - 세부업종별로 비금속광물(25.0%)은 증가하였으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82.5%), 의료, 정  
밀, 광학기기 및 시계(-41.1%), 고무 및 플라스틱(-14.0%), 석탄광업(-5.7)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함
  - 경공업부문도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세가 심화됨
  -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22.2%), 가죽·가방 및 신발(-23.4%), 섬유제품(-15.8%), 의  
복 및 모피(-11.9%), 종이제품(-5.4%)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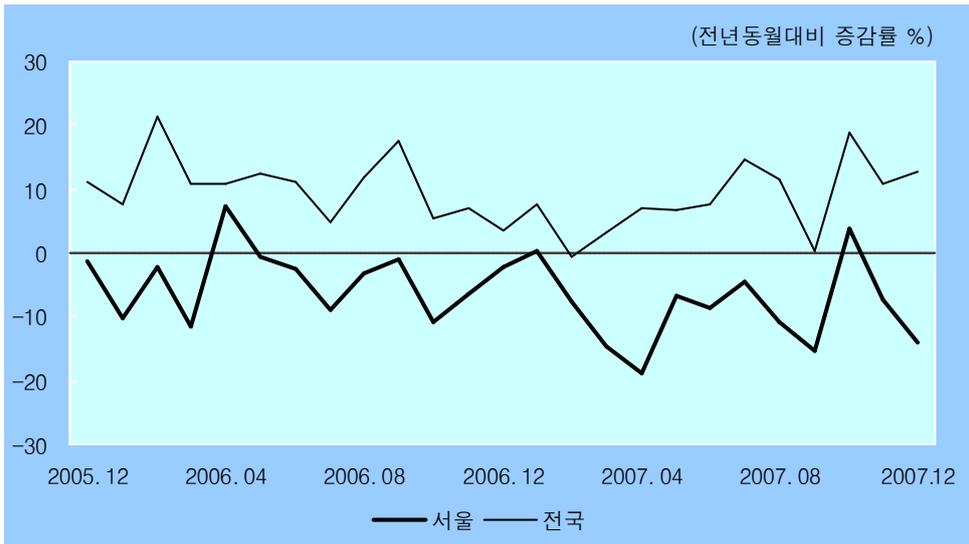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3.0 (-2.8)	11.2 (0.7)	0.4 (0.0)	18.3 (3.3)	10.8 (-0.2)	12.4 (-0.4)
	서울 (제조업)	-2.3 (8.3)	-10.7 (-4.3)	-15.2 (4.9)	3.7 (16.8)	-7.3 (-2.7)	-14.2 (0.2)
	중공업	-13.8 (25.2)	-23.9 (-8.8)	-27.7 (-0.4)	6.8 (33.1)	-9.2 (-5.5)	-23.3 (5.8)
	경공업	2.7 (3)	-6.1 (-2.9)	-11.1 (6.4)	2.7 (12.4)	-6.6 (-1.8)	-10.7 (-1.5)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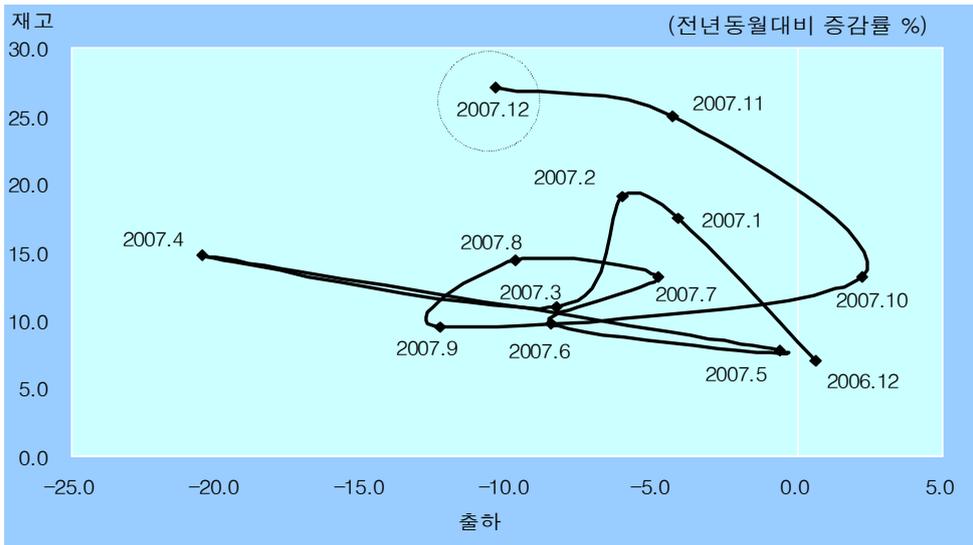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12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6.3(2000=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9.3% 감소.
  - 총출하는 전년동월비 9.3% 감소했으나 전월비로는 0.2% 감소
  - 업종별로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한 반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의복 및 모피,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하락하고 재고의 전년동월비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1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88.3%로 전월대비 1.5%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91.6%로, 전월 보다 3.5%p 하락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0.7% 상승한 198.8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7%p 하락한 187.4%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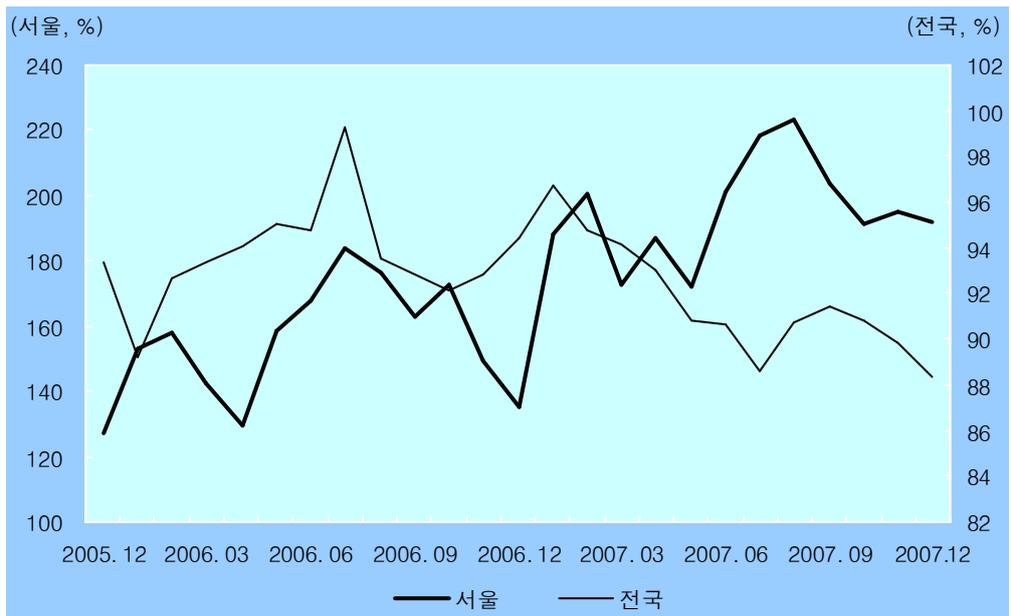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	
	12월	8월	9월	10월	11월p	12월p		
재고율	전국	94.4	90.7	91.4	90.8	89.8	88.3	-1.5
	서울 (제조업)	135.0	223.4	203.7	191.5	195.1	191.6	-3.5
	중공업	113.9	269.9	216.4	197.6	198.1	198.8	0.7
	경공업	141.1	207.9	197.6	187.5	192.1	187.4	-4.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12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감소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크게 감소

- 12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5,896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0%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11월 10.4%)이 크게 감소함
- 백화점은 전년 동월대비로 의복, 가구, 귀금속 등이 감소(-1.5%)했으며, 대형마트는 전년 동월대비로 운동·오락용품, 컴퓨터, 음식료품 등이 증가(6.3%)함

##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 1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161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9% 증가하여 증가폭이 감소함
- 백화점부문은 전년 동월대비로는 브랜드세일 실시로 신발, 가방 등의 판매는 소폭 증가했으나 송년세일 기간 축소(2006.12: 10일 → 2007.12: 5일)로 0.5% 감소
- 대형마트부문은 전년 동월대비로 신규사업체 증가(2006.12: 52개 → 2007.12: 57개)와 전반적인 상품군 판매호조로 12.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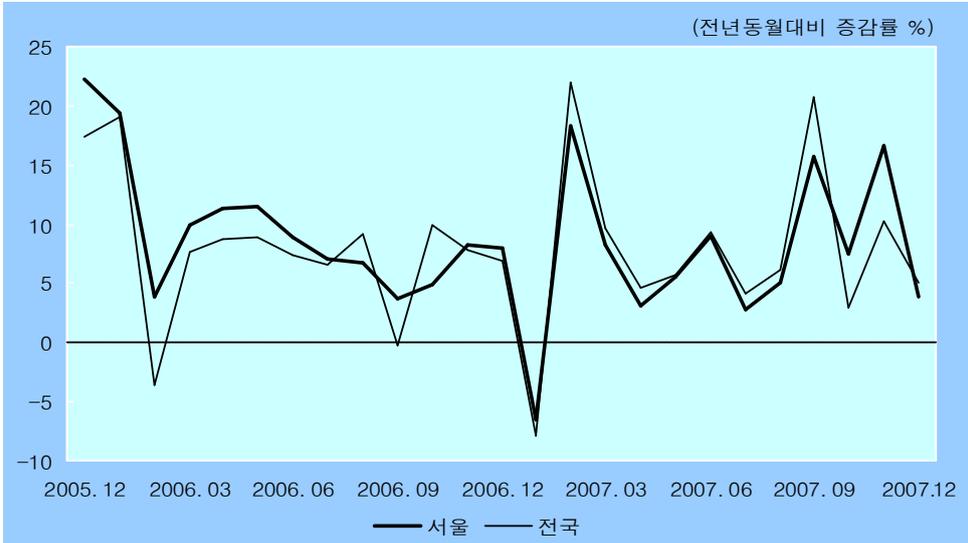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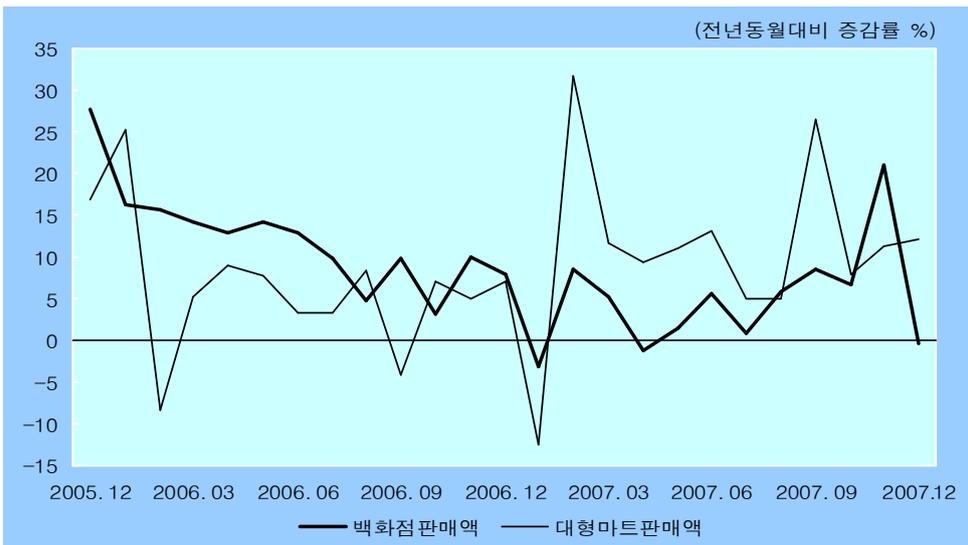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p	
판매액	전국	4,369 (6.9)	3,562.9 (6.2)	4,489.4 (20.7)	41,047 (2.9)	4,185.5 (10.4)	4,589.6 (5.0)
	서울	1,555 (8.0)	1,123.0 (5.0)	1,459.0 (15.7)	1,408.6 (7.5)	1,490.7 (16.7)	1,616.1 (3.9)
	백화점	966 (7.9)	561.0 (5.8)	773.5 (8.6)	833.6 (7.8)	908.5 (21.1)	961.4 (-0.5)
	대형마트 (할인점)	548 (7.1)	527.0 (4.9)	649.0 (26.5)	544.5 (8.0)	552.0 (11.3)	615.5 (12.0)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9%, 전년동기대비 3.9% 각각 상승함
- 공공서비스부문은 하락하였으나, 농축산물,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0% 하락함

##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1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6%로 상승함
- 비목별 동향으로는 전월에 비하여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 통신부문은 하락하였으나, 보건의료부문, 교통부문, 기타잡비부문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함

## ■ 상품부문, 서비스 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 농축산물은 배추, 무 등 채소류 및 과일류 등은 내렸으나 쇠고기(국산)가 포함된 축산물이 올라 전월대비 0.1(전국: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3.0%(전국: 1.9%) 상승함
- 공업제품은 경유, 휘발유 등 석유류가 올라 전월대비 0.9%(전국: 0.7%) 상승, 전년동월대비 5.4%(전국: 5.7%) 상승함
-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0.2%(전국: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2.4%(전국: 1.9%) 상승함
- 공공서비스 부문은 도시가스 등이 내려 전월대비 0.3%(전국: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5%(전국: 3.0%) 상승함
- 개인서비스 부문에서는 자동차학원비, 튀김담 등이 올라 전월대비 0.7%(전국: 0.6%) 상승, 전년동월대비 3.3%(전국: 3.6%) 상승함

##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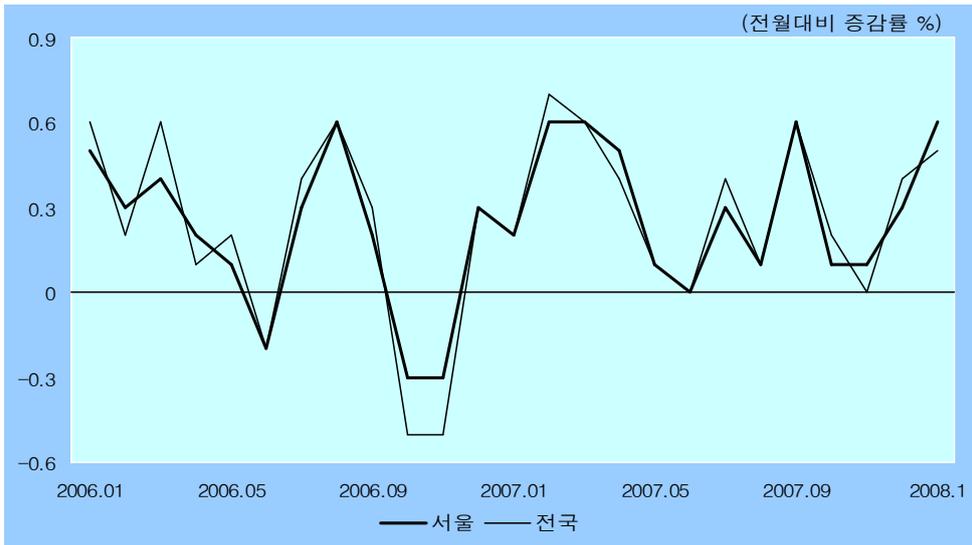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4% 로 소폭 상승을 보여 12월의 상승세가 유지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 월 비	전국	0.2 (1.7)	0.1 (2.0)	0.6 (2.3)	0.2 (3.0)	0.0 (3.5)	0.4 (3.6)	0.5 (3.9)	
	서울	0.2 (1.8)	0.1 (2.2)	0.6 (2.6)	0.1 (3.0)	0.1 (3.4)	0.3 (3.4)	0.6 (3.8)	
	상품 성질별	상품	0.1 (0.2)	0.1 (0.8)	1.3 (1.9)	0.3 (3.0)	0.0 (4.1)	0.5 (4.2)	0.8 (4.8)
		서비스	0.3 (2.6)	0.1 (3.0)	0.3 (3.0)	0.0 (2.9)	0.2 (3.1)	0.2 (3.1)	0.4 (3.2)
	생활물가	0.1 (1.9)	-0.1 (2.7)	0.9 (3.2)	0.3 (3.9)	0.0 (4.7)	0.3 (3.4)	0.4 (4.9)	
	신선식품	0.6 (-3.1)	0.2 (-1.2)	8.9 (5.7)	1.3 (10.1)	-6.3 (10.7)	0.3 (3.4)	-1.5 (4.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1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1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43만8천) 증가한 3,938만8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5만8천명 증가한 2,373만8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2.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48.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1월 중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는 823만5천명으로 남자는 400만1천명 여자는 42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0.6%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는 512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62.2%이며 남자는 73.6%, 여자는 51.4%임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0.8)	1.0 (-1.4)	1.0 (0.5)	0.9 (0.6)	1.0 (0.0)	0.9 (-2.0)	0.7 (-1.1)
	서울	-0.4 (0.1)	1.1 (-0.8)	1.2 (0.5)	0.5 (0.2)	0.2 (0.0)	-0.1 (-1.2)	-0.1 (0.0)
	남자	-0.4 (0.3)	1.6 (-0.5)	1.1 (-0.3)	0.4 (-0.2)	0.7 (0.2)	0.2 (-1.0)	0.0 (0.0)
	여자	-0.4 (-0.2)	0.4 (-1.2)	1.4 (1.7)	0.5 (0.8)	-0.5 (-0.2)	-0.5 (-1.3)	-0.3 (0.0)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5	61.7	62.0	62.3	62.2	61.0	60.3
	서울	62.8	62.8	63.1	63.1	63.1	62.3	62.2
	남자	74.3	75.1	74.8	74.6	74.7	73.9	73.6
	여자	51.9	51.2	52.0	52.4	52.2	51.5	51.4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 1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전국의 취업자는 2,29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23만5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4%(1,342만 명), 여자는 41.6%(954만4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3.0% 증가함
- 청년층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2.9%)에 비해 감소폭이 0.3%p 감소한 -2.6% 이며, 고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전월의 3.4%에서 3.0%로 0.4%p 감소함.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4만8천명, 4.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2천명, 0.9%)에서는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6만4천명, -4.8%), 도소매·음식숙박업(-3만천명, -0.6%), 제조업(-3만 명, -0.7%) 등에서 감소하였음

##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서울의 취업자는 491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천명(0.4%)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3천여 명(-0.1%) 감소함
- 남자는 281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1천명(1.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5천여 명 감소해 전월대비 감소폭이 0.2% 감소로 지난달의 감소폭보다(-1.2%) 줄어들음
- 여자의 취업자는 20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0.5%)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1천여 명 증가해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대비 증가세로 돌아섬
- 전체 취업자의 21.2%(104만2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고 전월비로는 3.5% 증가함
- 전체 취업자의 14.6%(71만7천명)을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1.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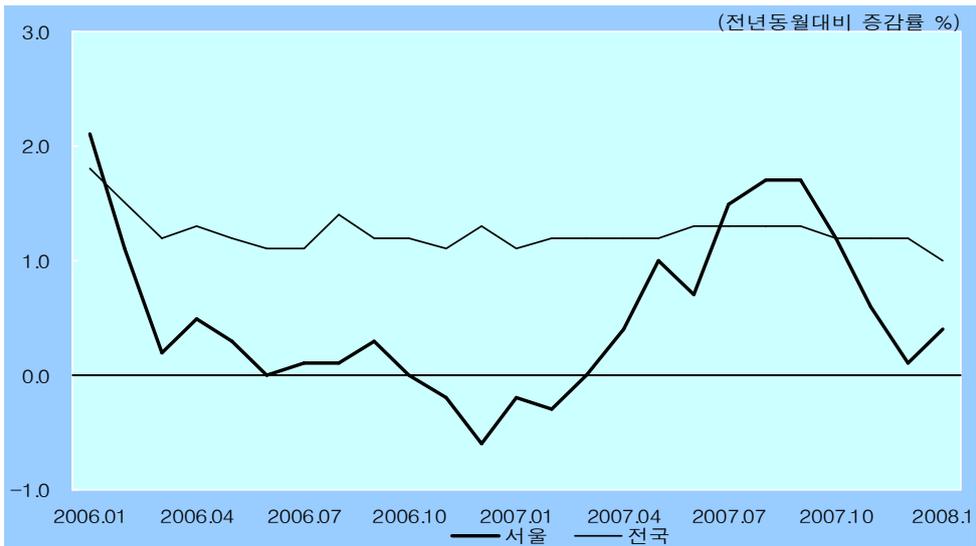
〈표〉 연령별 취업동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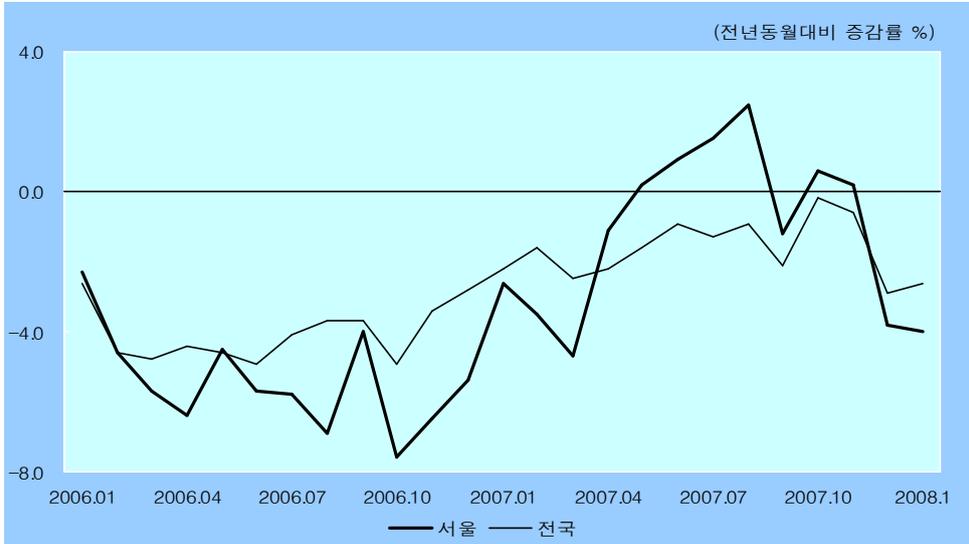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취업자	전국	1.1 (-1.1)	1.3 (-1.2)	1.3 (0.7)	1.2 (0.5)	1.2 (0.0)	1.2 (-2)	1.0 (-1.3)
	서울	-0.2 (-0.4)	1.7 (-0.8)	1.7 (0.6)	1.2 (0.1)	0.6 (0.0)	0.1 (-1.3)	0.4 (-0.1)
	남자	-0.9 (-0.4)	1.6 (-0.7)	1.1 (-0.3)	1.2 (0.1)	1.4 (0.3)	0.9 (-1.2)	1.1 (-0.2)
		여자	0.7 (-0.3)	1.9 (-1.0)	2.5 (1.8)	1.3 (0.1)	-0.5 (-0.5)	-0.8 (-1.4)
	청년층 취업자	전국	-2.2 (2.2)	-0.9 (-3.0)	-2.1 (-2.5)	-0.2 (1.3)	-0.6 (0.6)	-2.9 (-1.6)
서울		-2.7 (3.6)	2.5 (-2.3)	-1.2 (-3.0)	0.6 (-0.5)	0.2 (1.0)	-3.8 (-3)	-4.0 (3.5)
고령층 취업자	전국	6.4 (-3.9)	5.5 (-0.6)	5.0 (1.5)	2.6 (0.4)	2.0 (-2.1)	3.4 (-6.5)	3.0 (-4.3)
	서울	6.1 (-2.7)	8.1 (-0.7)	10.7 (3.8)	2.5 (-2.1)	0.7 (-1.6)	-0.5 (-2.8)	1.3 (-0.1)
	55-59세	-1.6 (-2.3)	7.2 (0.2)	5.9 (1.6)	5.4 (1.5)	2.7 (-1.3)	5.4 (-0.7)	7.2 (-0.5)
		60세 이상	12.8 (-3.1)	8.7 (-1.3)	14.5 (5.4)	0.3 (-4.7)	-0.9 (-1.7)	-5.1 (-4.6)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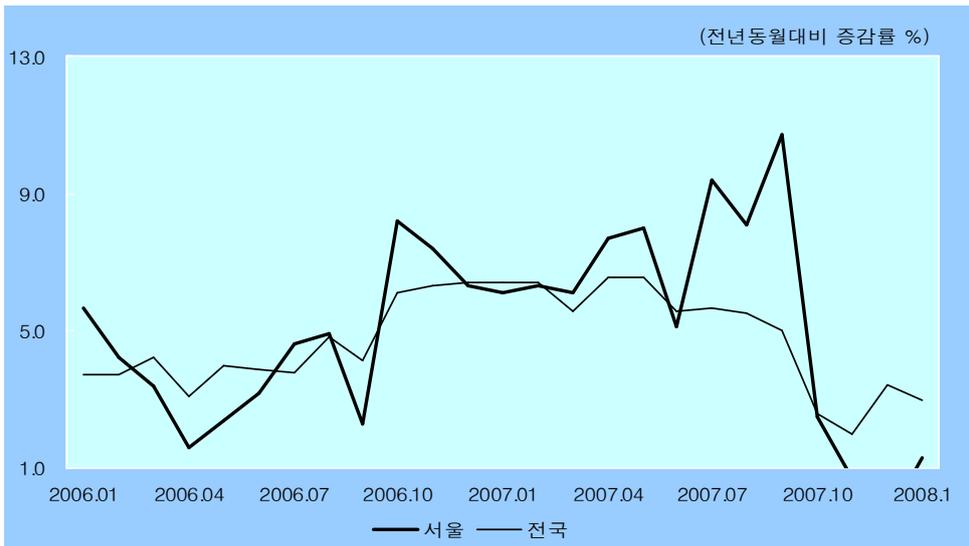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1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410만 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8%)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 제조업(1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3%), 건설업(8.3%)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여 전월(4.7%)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고, 이어 건설업(3.1%)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8.5%,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3%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8.0%)에 비해 소폭 확대됨

#### ■ 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155만4천명 31.6%)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33만1천명, 27.1%), 서비스·판매종사자(25.6%), 사무종사자(15.6%) 순임
-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8천명(4.6%), 서비스·판매종사자는 2만2천명(1.8%) 증가했으나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는 3만4천명(-2.5%), 사무종사자는 3만1천명(-3.9%) 각각 감소함

####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1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4.3% (365만 명), 비임금근로자는 25.6%(126만 명)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증가와 0.8% 감소를 보임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2천명(0.9%)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1만 명(0.8%) 감소하여 지난달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감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7만 명(51.5%)로 전년동월대비 8만9천명(5.0%)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3만2천명(-2.5%)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전년동월대비 2만6천명(-6.2%),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0.3%) 감소함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별	· 제조업	-4.3 (0.8)	-7.5 (-2.5)	-4.8 (3.5)	-8.0 (1.9)	-9.8 (-8.5)	-8 (0.2)	-8.5 (0.3)
	SOC 및 기타서비스업	0.6 (-0.6)	3.5 (-0.6)	2.6 (-0.2)	3.1 (0.1)	2.5 (1.4)	1.6 (-1.5)	2.1 (-0.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5 (0.1)	9.4 (-0.6)	7.3 (-0.5)	8.2 (1.3)	4.5 (-0.7)	4.7 (-1)	4.1 (-0.4)
	· 도소매·음식숙박	-2.6 (-2.4)	-4.0 (-0.6)	-4.7 (-0.9)	-5.5 (-1.4)	-3.5 (2.7)	-3 (2)	-1.3 (-0.7)
	· 전기·운수·통신·금융	-0.1 (1.5)	2.9 (-0.4)	6.3 (0.3)	7.1 (-0.3)	9.7 (6.6)	2.4 (-6.8)	3.0 (2.0)
	· 건설업	-3.9 (0.2)	4.5 (-0.5)	2.9 (2.8)	5.0 (-0.1)	4.8 (0.5)	2.3 (-7.9)	3.1 (1.0)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 (1.6)	7.3 (0.0)	6.0 (0.4)	5.8 (-0.8)	3.2 (-0.9)	6.8 (1.1)	4.6 (-0.5)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2.3 (-0.2)	1.2 (-1.6)	0.6 (0.8)	-1.4 (0.9)	-2.1 (-2.5)	-2.5 (-3.9)	-2.5 (-0.2)
	서비스·판매종사자	-2.1 (-4.0)	-3.8 (0.1)	-1.9 (-0.2)	-0.3 (0.8)	3.2 (4.8)	-2.5 (-2)	1.8 (0.2)
	사무종사자	0.5 (1.5)	1.3 (-2.6)	-0.2 (0.4)	0.3 (0.6)	-3.4 (-1.3)	-3.1 (-0.1)	-3.9 (0.6)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2 (1.3)	3.0 (-1.2)	3.4 (1.1)	2.8 (0.3)	1.5 (-0.7)	1.6 (-1)	0.9 (0.6)
	비임금근로자	-6.4 (-4.9)	-1.7 (0.3)	-2.9 (-0.8)	-3.1 (-0.4)	-1.9 (1.9)	-3.8 (-2.1)	-0.8 (-1.9)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 실·업·률 |

## 1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3.2%(실업자 77만5천명)로 전월(3.1%)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실업자 50만2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2.8%(실업자 27만3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별 실업률은 15-19세(증감, 1.8%), 35-39세 및 40-44세(증감, 0%)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교육정도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대졸이상(-2만9천명, -12%), 고졸(-2만6천명, -5.6%), 중졸이하(-2만1천명, -14.4%) 등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대졸이상에서 0.2% 감소하였고, 중졸이하와 고졸계층에서는 0.4% 증가함

## ■ 서울의 실업률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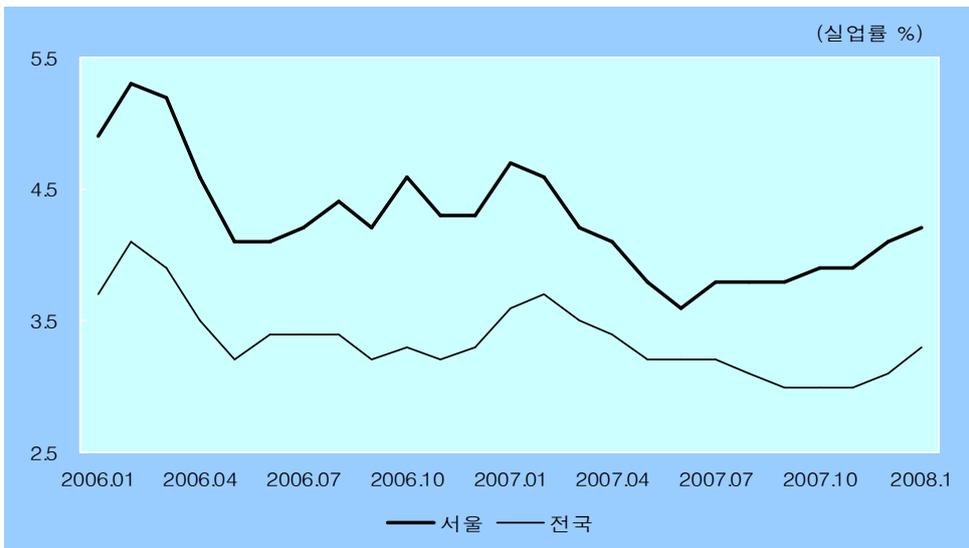
- 1월 서울의 실업자는 21만4천명,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만8천명(-11.5%), 실업률 0.5%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만5천명으로 3만1천명(-18.6%)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8만 명으로 3천명(4.1%)이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남자가 5.5천명(4.3%) 증가하였고, 여자는 0.5천명(-0.6%) 감소하였음
-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전월에 비해 1%p로 전월(0.7%p)에 비해 0.3%p 증가함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3.6	3.1	3.0	3.0	3.0	3.1	3.3	
서울	4.7	3.8	3.8	3.9	3.9	4.1	4.2	
성 별	남자	5.6	4.6	4.6	4.3	4.2	4.4	4.6
	여자	3.5	2.8	2.7	3.3	3.6	3.7	3.6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 건 · 설 · 경 · 기 |

### 12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대폭 감소

#### ■ 전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16조2,724억 원으로 토목(도로, 철도 등)공사가 감소한 반면, 건축(사무실, 공장)부문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4%의 증가를 보임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에서 34.6% 증가하고, 민간부문도 2.8% 증가함
-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에서 20.8% 증가하고, 토목부문은 27.5% 감소함

####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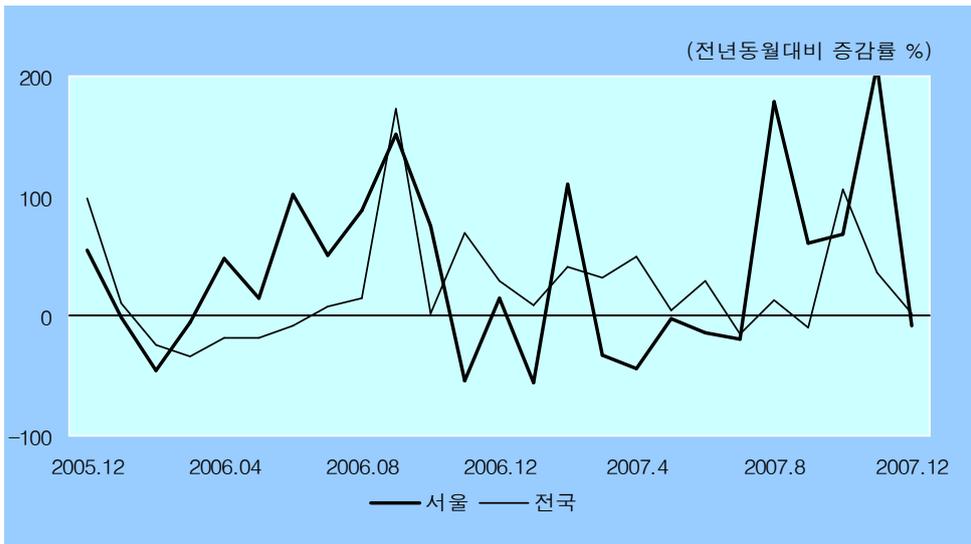
- 12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5,81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9.7%를 차지
- 발주자별로 보면 대학 첨단연구 단지 및 상수도 공사부문의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48.2% 증가하였으며, 신규 주택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13.7%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93.6%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8.1% 감소하였으며, 6.4%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0.8% 증가함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16,051	6,586	9,122	10,735	12,311	16,272	1.4	32.2	
서울	1,721	2,325	2,124	2,144	1,362	1,581	-8.1	16.1	
발주 자별	공공	152.6	104.8	75.1	163.1	265.7	226.2	48.2	-14.9
	민간	1,564.3	2,200.4	1,983.8	1,967.9	657.9	1,349.6	-13.7	105.1
공종 별	건축	1,609.3	2,200.8	2,119.6	2,086.3	917.9	1,479.3	-8.1	61.2
	토목	95.8	118.7	3.3	54.0	442.3	96.6	0.8	-78.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1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1,534.8천㎡로 전년동월대비 1,151.9%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777.7% 증가하고, 아파트는 194.6% 증가하였으며, 연립은 전년동월대비 92.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1월 대비 122.9%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3,553.1%), 문교 및 사회(3,404.9%), 상업(1,662.0%), 기타(4,818.2%)가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2,090.6% 증가함
- 2008년 1월 신축허가면적이 가장 큰 구는 서초구(240.5천㎡)로 상업용 신축허가면적이 203.5천㎡를 차지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7-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122.6	3,688.4	5,800.5	813.9	3,182.2	1,534.8	1,151.9	-51.8	
주거용	소계	58.6	405.0	1,853.5	29.5	36.9	130.6	122.9	253.9
	단독	0.9	8.6	16.8	1.7	11.5	7.9	777.7	-31.3
	연립	46.5	77.2	109.4	20.6	16.7	89.7	92.9	437.1
	아파트	11.2	319.2	1,726.7	7.2	8.7	33.0	194.6	279.3
비주거용	소계	64.1	3,283.3	3,947.0	784.5	3,065.4	1,404.2	2,090.6	-54.2
	상업	49.5	2,766.2	2,416.9	696.6	2,223.9	872.2	1,662.0	-60.8
	공업	3.2	49.1	111.4	0.0	91.1	116.9	3,553.1	28.3
	문교/사회	10.3	413.5	206.1	87.2	665.1	361.0	3,404.9	45.7
	기타	1.1	39.6	1,212.1	0.6	85.2	54.1	4,818.2	-36.5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다소 확대

- 1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100.3(2007.12=100.0)으로 전월대비 0.3%상승함
- 방학, 이사철을 맞아 거래가 다소 활발해진 가운데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의 강세가 지속됨

##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7%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강북이 1.2% 상승하여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강남은 0.2%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 강북지역에서는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경전철 노선확정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으로 노원구(2.1%)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은평구(1.9%)도 응암동 재개발로 인해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상승하였음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7-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국	97.8	100.0	100.3	2.6
서울	96.3	100.0	100.7	4.4
아파트	98.3	100.0	100.5	2.2
지역별				
강북	93.9	100.0	101.2	7.8
주택매매				
강남	98.6	100.0	100.2	1.6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9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

- (0.7%)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5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1.2%)을 상회함
- 노원구(2.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은평구(1.9%), 도봉구(1.4%), 강북구(1.3%), 성북구(1.3%)의 순임
- 반면 성동구(0.2%), 중랑구(0.4%), 중구(0.5%)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11개 구 중 3개 구만이 강남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상회하고 있음
- 관악구가 0.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로구와 금천구가 0.4%로 그 뒤를 이음

####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함
-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 상승한데 반해, 강남은 0.1% 상승에 그치고 있음
- 구별로 보면 강북구(1.2%), 노원구(2.0%), 성북구(1.2%), 중구(1.0%), 금천구(0.8%), 종로구(0.7%)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상회함
- 반면 성동구(-0.1%), 송파구(-0.1%), 양천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고, 광진구, 강동구, 영등포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보임
- 서울의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1,769만원으로 전월(0.3%)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됨
-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11만원), 서초구(2,746만원), 송파구(2,521만원), 용산구(2,475만원), 양천구(2,080만원), 강동구(1,903만원), 광진구(1,855만원)임
- 아파트 3.3 $m^2$ 당 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도봉구(983만원), 은평구(968만원), 중랑구(960만원), 금천구(918만원)임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1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이사철을 맞아 거래가 다소 활발해진 가운데 전월대비 0.2%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음
- 주택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형이 0.1%, 소형이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0.1%, 연립주택이 0.4% 상승하며 연립주택의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1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이 0.6%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강남지역은 0.1% 상승하였음
- 강북지역에서는 은평구(1.3%)가 불광동과 응암동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용산구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1.1%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7-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월	12월	1월	
전국	97.9	100.0	100.2	2.3
서울	96.9	100.0	100.3	3.5
아파트	98.5	100.0	100.2	1.7
지역별				
강북	95.5	100.0	100.6	5.3
주택전세				
강남	98.3	100.0	100.1	1.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주요 상승지역은 은평구, 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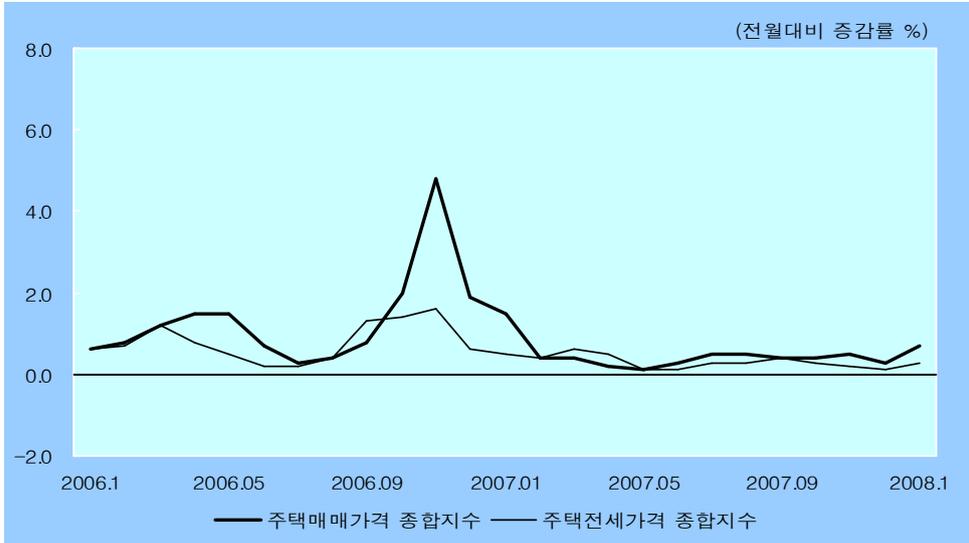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1.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용산구(1.1%), 노원구(0.8%), 서대문구(0.7%), 도봉구(0.6%), 강북구(0.6%), 광진구(0.6%) 등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3%)을 상회함
- 강동구(-0.1%), 강서구(-0.2%)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종로구와 마포구는 전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냄

### ■ 아파트 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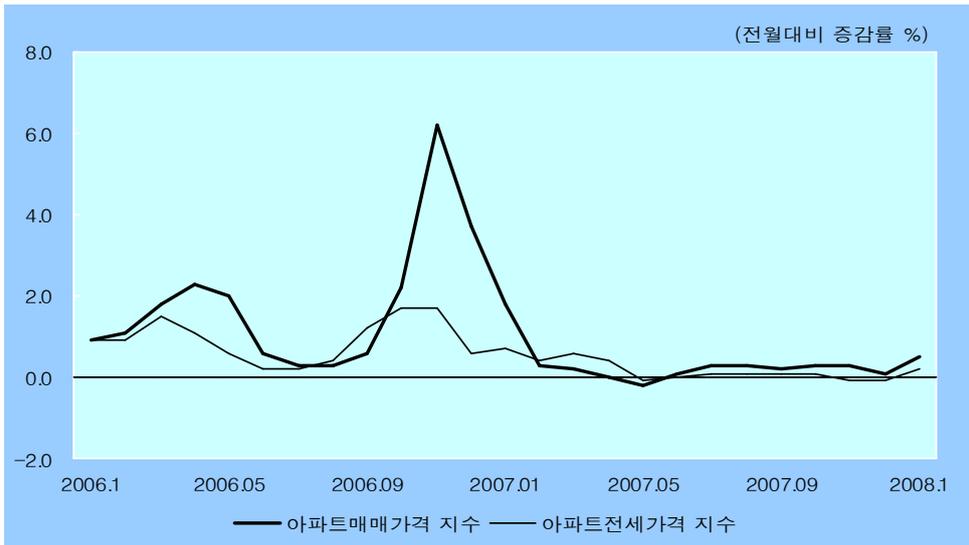
- 서울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함
-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을 보면 강북은 0.6% 상승했으며 강남은 0.1% 상승함
- 구별로는 은평구(1.3%)와 용산구(1.1%)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노원구(0.8%), 서대문구(0.7%), 도봉구(0.6%), 강북구(0.6%), 광진구(0.6%), 성북구(0.4%), 동대문구(0.4%)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강동구와 강서구는 각각 -0.1%, -0.2% 전세가격이 하락함
- 1월중 서울의 아파트 3.3m<sup>2</sup>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한 628만원으로 강남구(973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금천구(442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하락세 지속

- 2008년 1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1%로 전월에 비해 미미한(0.1%p) 하락을 보이며, 지난해 5월(43.2%)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7.8%, 강남은 37.3%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되면서,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7년 5월 이후로 미미하지만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강남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도 미미한 하락세를 보임
- 2006년 11월 처음 30%대를 기록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37.3%)과 동일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 1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급락 후 반등

##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급등 후 반락

- 1월 국고채(3년) 수익률은 1월 중순 이후 주식시장 부진,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콜금리 목표의 인하 기대, CD금리 하락세 반전 등으로 콜금리목표 수준 가까이 급락하였다가 소폭 반등함 (07.12월말 5.74% → 08.1.8일 5.90% → 1월말 5.04% → 2.11일 5.12%)
- 1월말 CD(91일) 유통수익률도 MMF 수신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 은행의 자금사정 개선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07.12월말 5.82% → 08.1.15일 5.89% → 1월말 5.50% → 2.11일 5.36%)

## ■ 장단기 금리차 확대됨

- 1월말 장단기 금리 차는 -0.37%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으며 전월(0.16%)에 비해 대폭(-0.53%) 하락함

## ■ KOSPI 지수 등락을 거듭

- 1월중 KOSPI 지수는 주요 IB들의 실적악화 및 美 경기 침체 우려,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중국의 추가 긴축조치 우려 등으로 1,600p선 이하로 급락한 후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소폭 반등(07.12월말 1,897p → 08.1.30일 1,589p → 1월말 1,625p → 2.11일 1,641p)
- 1월중 투자자별 동향은 외국인의 경우 유동성 확보, 차익실현 등을 위해 현물 순매도를 큰 폭으로 늘린 데다 선물도 순매도로 전환
- KOSDAQ 지수는 월 중반 잠시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하락세를 유지하여 전월대비 7.6% 하락한 667.12p로 마감함

## ■ 원/달러 환율 상승

- 1월중 환율은 전월대비 12.2원 상승한 942.4원으로 마감했으며 지난 10월 이후 지속된 환율 상승 추세가 유지됨
- 1월 중 외환보유고는 전월대비 2억9.6천만 달러 증가한 2,622억2천만 달러를 기록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금 리	국고채(3년)	5.02	5.39	5.42	5.54	5.89	5.44	-0.45
	CD(91일물)	4.96	5.34	5.34	5.43	5.73	5.81	0.08
	콜금리(1일)	4.61	4.98	5.00	5.00	4.99	4.99	0.0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41	0.05	0.08	0.11	0.16	-0.37	-0.53
주 가	KOSPI <sup>2)</sup>	1,360.23	1,879.0	2,004.6	1,924.8	1,908.6	1,732.3	-176.3
	KOSDAQ <sup>2)</sup>	576.37	777.6	801.5	755.7	722.3	667.1	-55.2
환율 (₩/US\$) <sup>2)</sup>	940.9	932.4	915.9	917.0	930.2	942.4	12.2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소폭 감소

- 1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을 중심으로 소폭의 감소세 지속됨
-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지역에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이 상당규모 늘어남에 따라 증가 폭이 다소 확대됨
-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으로 감소폭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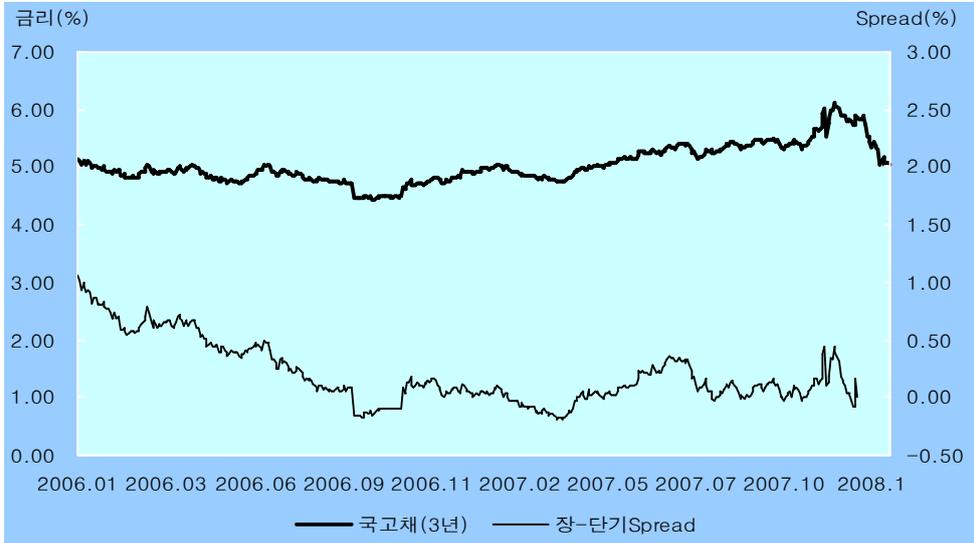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 월비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2008년	
		1월	12월	1월	12월	1월	12월	1월	
가계대출 <sup>1)</sup>	17.8	-0.2	3.9	3.3	-0.3	-0.7	363.4	362.8	-1.7
주택담보대출 <sup>2)</sup>	4.6	0.7	1.1	1.6	-0.0	0.8	221.5	222.5	-0.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0.9	2.8	1.7	-0.3	-1.5	140.1	138.5	-1.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축소

- 12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58조 8,727억 원으로 전월대비 1조1,424억 원 감소하여 감소세로 전환됨
- 1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22조 6,367억 원으로 전월대비 4,050억 원 감소하여 감소세로 전환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6년	2007년				전월대비 증감액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예금은행	699,430.3	777,069.7	790,358.7	807,189.4	803,724.1	-3465.3
	비은행기관	271,282.3	245,822.4	249,303.4	252,825.7	255,148.6	2322.9
	합계	970,712.6	1,022,892.1	1,039,662.1	1,060,015.1	1,058,872.7	-1142.4
서울	예금은행	291,317.9	327,216.4	333,662.8	343,211.3	343,162.9	-48.4
	비은행기관	60,442.8	77,161.1	78,134.0	79,830.4	79,473.8	-356.6
	합계	351,760.7	404,377.5	411,796.8	423,041.7	422,636.7	-40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2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소폭 상승

- 11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59.1%로 전월에 비해 0.7%p 상승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83.2	86.4	86.9	87.6	87.9	87.5	-0.4
서울	55.8	57.1	57.9	58.1	58.4	59.1	0.7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1월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24.6%(1,046개) 증가한 5,298개임
  - 업종별로 전월대비 농·임·어업 및 광업(61.3%), 건설 및 설비업(52.0%), 제조업(35.8%), 서비스업(16.3%) 등 전 업종이 증가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이 64.6%, 제조업이 19.2%, 건설 및 설비업이 15.1%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5.4%(-106개) 감소한 1,875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5.4%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2%, 제조업이 15.3%, 건설 및 설비업이 7.8% 감소하는 등 전 부문에서 감소함
  
- 서울 전 업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월대비 15.3%(-69개) 감소하여 1278개를 나타냄
  - 부문별로 사업서비스업이 35.7%(669개), 도매 및 소매업 30.0%(563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3.9%(73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87.3%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5,337	4,595	4,388	4,249	5,298	-39	-0.7	1,049	24.7
서울	1,981	1,680	1,617	1,520	1,875	-106	-5.4	355	23.4
서비스업	1,639	1,333	1,380	1,342	1,570	-69	-4.2	228	17.0
제조업	150	159	101	68	127	-23	-15.3	59	86.8
건설 및 설비업	192	186	133	110	177	-15	-7.8	67	60.9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 1월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

#### ■ 전국 어음부도율 보합

- 1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년동월대비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93개로, 전월(178개) 보다 8.4%(15개) 증가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5개(62개→67개), 지방이 10개(116개→126개) 각각 증가

#### ■ 서울 어음부도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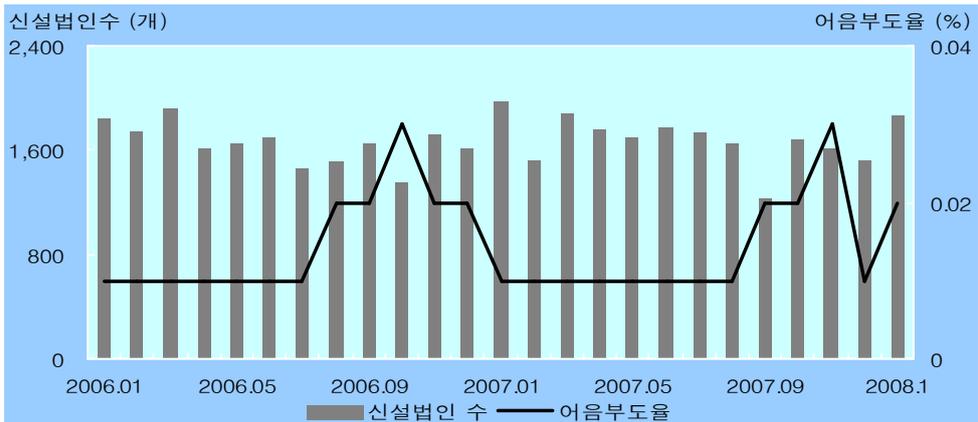
- 1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27.08배로 전월의 24.51배에 비해 다소 상승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3	0.04	0.03	0.03	0.00	-	0.01	-
부도업체 수	188	258	210	178	193	15	8.4	5	2.7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3	0.01	0.02	0.01	-	0.01	-
부도업체 수	66	78	59	62	67	5	8.1	1	1.5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보증 건수 및 금액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1월중 597건, 17,926백만 원을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28.8%, 금액은 32.3% 감소함
- 연말 자금수요에 따른 조기처리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8년 1월 4일 「2008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일반보증 수요의 증가가 예측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621	1,223	1,447	978	838	597	-241	-28.8	-24	-3.9
금액	17,892	21,473	28,455	31,304	26,479	17,926	-8,553	-32.3	34	0.2
건당평균금액	28.8	17.6	19.7	32.0	31.6	30.0	-1.6	-5.1	1.2	4.2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전월 수준의 비율 유지

- 1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도·소매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1.8%p 감소하여 40.6%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업종이 전월수준의 비율을 유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60	231	119	152	35	597
비율	10.0	38.7	19.9	25.5	5.9	100
금액	2,102	7,268	3,296	4,446	814	17,926
비율	11.7	40.6	18.4	24.8	4.5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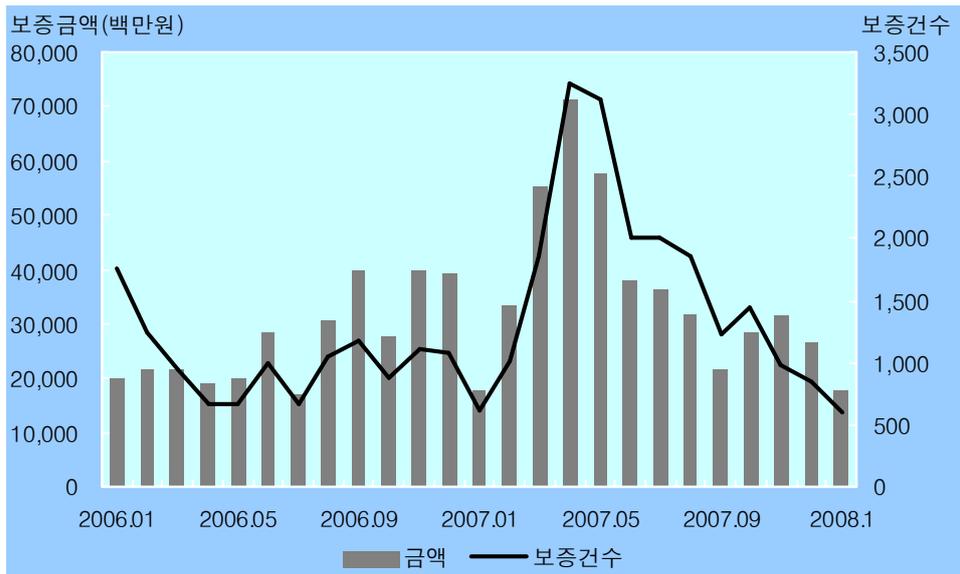
- 2007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종료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14.7%p 증가하여 88.4%를 나타낸 반면, 소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 대비 13.7%p 감소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p)

구분		2007.11	2007.12	2008.01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886	735	556	-179
	비율	90.6	87.7	93.1	5.4
	금액	23,402	19,510	15,843	-3,667
	비율	74.8	73.7	88.4	14.7
소기업	건수	77	80	30	-50
	비율	7.9	9.6	5.0	-4.6
	금액	6,711	5,359	1,159	-4,200
	비율	21.4	20.2	6.5	-13.7
중기업	건수	15	23	11	-12
	비율	1.5	2.7	1.9	-0.8
	금액	1,191	1,610	924	-686
	비율	3.8	6.1	5.1	-1.0
합계	건수	978	838	597	-241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1,304	26,479	17,926	-8,55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